

변화되고 있는 안전 업무

1. 서언

안전전문가의 직업은 유동적이다. 일반적으로 안전전문가들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업무의 성격은 변화되고 있다. 문화, 기술 및 경제의 전반에 걸친 변화는 안전전문가가 업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 뒤에 있는 추진 동기 가운데 한 가지는 미국이 제조업 기반 경제에서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점진적인 변화하데 원인이 있다. (미)연방도로관리국 2005년 연구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97년 사이 미국 국내 총생산 가운데 서비스부분이 제조부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에는 제조업이 대략 서비스업과 금융, 보험 및 부동산부분을 합한 것과 거의 같은 규모였다. 그러나 1997년에 이르러서는 제조업이 무역부분을 겨우 상회하면서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안전전문가들은 그들의 전문적 기술을 서비스부분에 접목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공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Trench-It 유한회사 안전·품질 담당자인 칼 그리피스씨는 “안전전문가들은 훌륭한 마술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들은 기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했다. 현장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두 가지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담당업무가 지속적으로 더욱 다 기능화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전문가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새로운 방법 및 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인 다역의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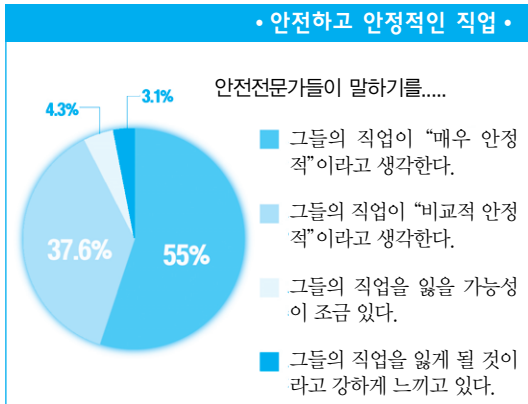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사항도 변해가는 가운데 적은 인원으로 안전부서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컨설팅 회사 사장인 Lee Marchessaault씨는 이러한 업무의 일부는 기술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 20년 동안 기술이 변화해 왔으며, 그 결과 1990년에 관리 업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 안전과 연관된 업무는 축소되었다.”

Savoy사의 로저 브라우어 이사는 “과거에는 안전 기능이란 난로의 연통과 같아서, 한 조직에서 한 사람이 안전기능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은 환경기능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산업위생에 책임을 지는 등의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는 안전전문가가 이들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비상조치계획, 보안 및 다른 기능까지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Trench-It사의 그리피스씨도 이에 동의하며, 그는 회사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력에 더욱 강하게 의존하게 됨에 따라 안전부서 규모가 더욱 작아지고 중요도도 더욱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견해는 NSC의 월간지 Safety+Health의 ‘2006급여조사 결과’ 와도 일치한다. 응답자들 가운데 41%는 부하직원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고, 또한 37%는 부하직원이 1인에서 5인을 두고 있다고 했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에 걸쳐 안전담당부

서장 및 안전담당이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숫자가 시사하는 것은 안전부서가 많은 경우 1인 부서이거나 또는 매우 적은 직원수의 부서를 의미한다.



기술에 의존성과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함에 따라 안전전문가들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들 중 하나는 안전책임이 해당 조직 내에서 다른 역할과 결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 사업주들은 다음의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안전전문가로 하여금 다른 역할도 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생산과정 또는 인사담당자와 같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 기능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일인 다역의 추세가 금방 끝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Marchessault 씨는 말한다. 안전 기능을 안전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 종종 그들의 다른 업무가 우선하고 안전이 덜 중요 시 될 위험이 있다고 그는 경고하였다.

3. 안전 산업의 정체성의 위기?

산업구조 변화로 이와 같은 모든 사항이 안전 산업 구성원들 간의 정체성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즉 안전기능 인식이 안전전문가 및 기업들에 대해서는 변화되고 있다.

리먼 그룹의 사장인 제임스 리먼씨는 “직장인들

은 안전전문가가 제반 규정에 관련한 업무를 주로 행하며 본질적으로 OSHA의 연장으로 간주해 오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많은 안전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회사에 대한 가치증진에 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안전 전문가들이 서비스 부분에서 중점 관리해야 하는 항목들과 제조업 부분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안전전문가들이 어떠한 산업에 종사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조직에 부가가치 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가이다.

그에 의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 업무를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계속하는 한편,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환경복원회사인 엔바이로콘사의 사장 로이드 앤드류씨는 서비스 부분이 안전전문가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도 역시 많은 안전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안전에 관한 전문가적 지식을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영역이 제조부분에서 서비스부분으로 이동 중에 있고, 아직 기술적 요소들은 변경되지 않아 안전전문가들은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업무에 적응하고, 업무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서비스분야 사업주들이 안전이 가져올 수 있는 부가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고, 안전 프로그램이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한편, 리먼씨는 가장 큰 차이점을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안전전문가들은 보다 더 “외부지향적”이 될 것인데 반하여,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는 보다 “내부지향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 부분의 업무는 종종 고객사의 안전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컨설팅 회사처럼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특히 그러하다.

제조업 환경에 있어서는 주안점이 “우리는 어떻게 작년 비용보다 10~15% 더 저렴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 이를 달성하는 방법들 중에 한 가지는 안전사고를 감소하는 것”과 같이 전적으로 회사 내

부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다 주안점은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보다 더 높이는데 있다.

• 설문조사 결과 •

안전전문가의 “40%”는 자기 회사의 안전부분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고, “50%”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안전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그들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 한다. 공인 안전전문가위원회의 브라우어씨는 “제조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동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들 업무들의 대부분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으며, 안전전문가들은 점점 더 국제적인 상대와 상호 관련된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사업이 이들 국가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4.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변화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삶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산업안전솔루션사의 Marchessault씨는 “안전 관련 직업 시장은 경제와 함께 변화할 것이며, 이들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이런 추세로 다른 전문가들(인사전문가 또는 생산감독자)이 안전업무를 겸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경향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인 다역의 요구가 수년 동안 증가되게 되면 안전프로그램은 쇠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상해사고는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반대급부로 작용하게 되고 회사들은 안전전문가들을 다시 확보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전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회사들은 안전전문가들의 노령화되고 공석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사람들이 채우는 결국 전문화가 쇠퇴되는 문

제에 봉착될 것이다.

Trench-It사의 그리피스씨는 “대학에서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안전전문가들을 배출해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안전전문가가 각 계층으로부터 배출되곤 하였지만 이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회사들은 안전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를 경쟁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리먼씨도 안전에 관한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학교와 교수가 적다고 지적하였다. 안전 분야로 발을 들여 놓는 소수의 안전전공자들에 대하여 선배 산업인들은 그들의 안전 이상의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진취적인 안전전문가들은 그들이 일하고 있는 산업에 대하여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확고한 사업기술도 가져야 한다.

“이들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그들은 안전 지식 및 안전기술을 갖게 되곤 하지만, 그들의 직무의 일부분인 관리능력이 부족하게 된다.”고 그리피스씨는 말했다. 학교에서는 안전전공자들에게 관리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시건 및 꼬리표부착기술에 관해 알고 있지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목표관리를 하는지를 모른다.

안전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무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어떤 일을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안전전문가들은 경영팀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사업의 전문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출처 : 미국 NSC의 Safety + Health, 2007년 5월호〉